

#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

---

2021. 6. 30.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6월 30일(수) 10:00~18:44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43호, 제145호~제147호, 보고 제34호~제36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 4. 회의경과

###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 1) 회의록 보고

- ☐ 2021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및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은 차기회의에 보고하기로 함.

### 2) 안건 심의

- ☐ 의결안건 제143호 『증권선물위원회 운영규칙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참고3> 의결서 작성 및 공개 개선안 요약’의 ‘현행’과 ‘개선’이 있는데 개선 부분을 보면 진한 글씨로 되어 있는 의결서 부분만 추가되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증선위에서 증선위원장님한테 신규 위임하는 사항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음. 이렇게 되면

의결안건으로 올라왔던 것이 없어지고 위임된 사안은 보고 안건으로 저희들이 볼 수가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일반적으로 위임을 하게 되면 사무처로 넘어가서, 저희가 생각했던 것은 보고안건에서도 일단 빼는 사항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은 보고 안건으로 할 수도 있을 것 같음.
- (위원)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3페이지 ‘②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에 대한 사항’ 이것이 우리가 몇 년 의사결정을 하면서 의견진술이 굉장히 많았음. 사례별로 (case by case) 한국거래소의 시스템이 불비하다든가,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어서 의견진술이 굉장히 많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렇게 절차가 바뀌면 의견진술이나 이런 것은 없어지는 것인지?
- (보고자) 말씀하신 대로 회의석상에서 의결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진술기회는 사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음.
- (위원) 그렇게 되면 의견수렴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것이 필요할 듯함. 이것이 개별 기업들한테는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약간 고려하셔야 될 것 같음.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동의함. 제 생각에는 진술기회는 모두에게 다 안내를 하고 진술하겠다고 하면 증선위로 올리고 진술을 하지 않겠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위반을 인정하는 것이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fact) 위반으로 하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여기 위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이런 것들은 위원님들이 원하시면 서면보고가 되었든 대면보고가 되었든 보고안건으로 분기에 한 번씩이라도 보고 드리는 것으로 하는 것도 못할 것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

- (보고자) 그렇게 운영하겠음.

- (위원) 위원님들 말씀하신 취지를 전체적으로 봐서 감사前 재무제표 제출 위반과 관련해서는 진술기회를 드리고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진술기회가 있음을 안내하고, 그 제재대상자가 진술을 요청할 때는 증선위에 상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안건을 증선위원장한테 위임할 수 있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음. 그다음에 '경고 또는 주의'와 관련해서 어떤 사안들이 논의되었는지를 추후 증선위에 보고안건 형태를 통해서라도 보고 드릴 필요가 있음. 증선위의 권한이 증선위원장에게 현재 위임되어 있는 모든 사항을 전반적으로 보셔서 이 건 포함하여 정기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증선위에 보고할 것인지 보고내용, 보고주기 이런 것들을 정리해서 증선위에 보고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그 보고된 내용에 따라서 이행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음.

- (보고자) 증선위원장에게 위임된 사항에 대해 정기보고 필요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음.

- (위원장) 제143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의결하겠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단순·반복적인 행정절차

사항 등에 대해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증권선물위원장에게 위임하는 취지는 적절해 보임. 다만,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사항”(별표 제3호라목)과 관련하여, 제재대상자자의 방어권 등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위원장이 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안건을 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정의결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44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한국거래소와 상해증권거래소가 ETF 관련하여 MOU 체결한 것이 첫 사례인지?

- (보고자) 우리나라와 상해증권거래소는 처음임. 사실 예전부터 중국 측에서 공격적으로 추진해서 일본과는 이런 식으로 MOU를 체결하여 각각 상장해서 거래되고 있는 상황임.

- (위원) 해외의 경우 이런 사례가 좀 있는지?

- (보고자) 중국에서 중국과 일본, 홍콩과 중국 이렇게 추진해서 시작하고 있고 우리나라까지 제안을 해서 우리도 운용사와 협의해서 수요가 맞아서 추진하게 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음.
- (위원) OECD 및 홍콩, 싱가포르에서 설정된 펀드에 대해서는 현재도 교차상장이 가능한 상황인 것인지?
- (보고자)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음. 이 규정이 역외펀드, 외국펀드의 국내 등록 가능한 국가를 설정해 놓은 조항임.
- (위원) 그렇다면 OECD와 홍콩, 싱가포르에서 하는 것은 그대로 있고 중국에 대해서 추가하겠다는 내용이신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지금 이렇게 교차상장 되는 것은 USD가 기초(base)인지 원화가 기초(base)인지?
- (보고자) 우리나라 시장에 상장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화를 기초(base)로 할 것임. 일단, 중국에 상장된 것을 우리나라 운용사가 포장지를 씌우고 안에 환전 관련된 장치는 마련될 것임.
- (위원) 한·중 거래소 간에 한·중 ETF 교차상장이라는 포장지 씌운 것 말고 실질을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국내 공모펀드 기준으로 우리가 미리 인정해준 국가의 어떤 자산 또는 펀드에 대해서 20% 이상을 편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거기에 공모펀드가 20% 이상을 편입할 수 있는 특정 국, 특정자산에 중국에 상장된 ETF를 포함시키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교차상장은 그냥 포장지인 것이고, 규정상으로의 변화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인지?

- (보고자) 맞음. 교차상장이라는 것은 중국과 공동으로 ETF 서로 상장된 것을 같이 연결(connect)해서 썬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이고, 결과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 규정은 역외펀드 등록할 수 있는 국가에 그것을 포함시키는 것이고 역외펀드로 등록된 국가의 펀드에 대해서는 공모펀드가 20% 이상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위원) 국내 ETF 운용하는 해당 운용사들한테 그런 여러 가지 검증이나 중국의 해당 ETF가 추종하는 지수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유의해서 편입을 하라는 얘기도 덧붙여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고자) 알겠음. 그래서 아직 첫 단계이다 보니까 시행규칙 조문에 모든 중국펀드가 아니고 중국 ETF로만 한정을 했음. 위원님 말씀하신 것도 잘 전달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음.



- (위원)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를 보면 자산운용한도에 대한 예외로 중국만 있음. 왜 별도의 조항이 중국만 있는 것인지?

- (보고자) 시행령에 OECD국가와 홍콩, 싱가포르가 있고, 기타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가 있는데 비어(blank) 있었음. 거기에 저희가 시행규칙으로 중국 ETF만 이번에 넣는 것으로 개정을 했음. 시행령으로 해도 되고 시행규칙으로 해도 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증선위원장 입장(증선위원장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45호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감사보고서에 대한 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 회계법인은 감사절차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그 하자를 인정함. 그렇지만 조치양정 중 위법동기 ‘중과실’ 판단에 대해 이견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하게 되었음. 당 회계법인은 품질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이러한 노력의 결과 Big4나 중견회계법인들 중 감리지적

사항이 가장 적은 투명(Clean)한 회계법인으로 자리하고 있으며 우리 구성원들은 이를 매우 자랑스러워하고 있음. 사전통지의 조치 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두 가지 사항인데 내재파생상품과 파생상품 평가에 대해서 중과실 처분 받은 사항임. 중과실 동기판단을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는지, 그리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가 하는 두 가지 사항을 기준으로 중과실 판단을 내리게 되어 있음. 먼저, 우리가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하였는지에 대해서 변론을 드리겠음. 우리 회계법인은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을 하반기에 지정 받아서 감사를 수행했는데 감사계획수립과 1분기, 반기 검토 실시 이런 것을 모두 생략할 수밖에 없었음. 그래서 상대적으로 감사실시기간이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앞선 △△회계법인과 뒤의 ▲▲회계법인보다 훨씬 많은 노력과 시간들을 투입했음. Man-day기준으로 우리 ○○회계법인은 70일이고 △△회계법인의 경우 54일임. 그래서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는 것을 강조 드림. 그리고 두 번째 재무제표 작성책임은 회사의 책임임. 파생상품은 아시다시피 계약서에 숨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제대로 제시해 주지 않으면 파악하기 매우 힘든 사항임. 그래서 경영자 확인서에 저희들이 꼭 확인을 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제대로 제시를 받지 못하였음. 그리고 지적경위도 대단히 복잡한데 전임감사인 △△회계법인과 후임감사인 ▲▲회계법인 그리고 3개 회계법인이 발견하지 못하였고 제46기가 되어서야 겨우 발견되었음. 그리고 회계정보이용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인가를 보시면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은 자산총액이 5,000억 원 정도의 규모로 매우

작은 기업임. 그리고 비상장이고, 1인주주로 이해관계가 매우 적음. 그리고 지적사항의 플러스마이너스 효과를 고려해 보면 Net effect가 중요성 이내로 수정하게 되어서 정보이용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판단됨. 그다음으로 세 번째, 조치의 형평성과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음. 저희 앞선 회계법인으로 △△회계법인이 있고 뒤에 ▲▲회계법인이 있는데 모두 면책된 사항임. 그리고 이 지적사항은 전임 회계법인으로부터 이월되어온 금액이 대부분임. 그래서 우리 회계법인도 이러한 점을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하는 점임. 그리고 억울한 점이 있습니다만 ▲▲회계법인이 우리에게 적절하게 통지를 했다면 우리가 이런 오류를 제대로 수정해서 공지했을 텐데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1단계 감경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나, 오류정정 기회가 박탈되었음. 네 번째, 설사 감사에 투입된 공인회계사들이 감사를 잘못해서 ‘중과실’ 처분을 받게 된다고 하더라도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이런 ‘중과실’ 처분을 하는 것은 과하지 않느냐 하는 점임. 우리 회계법인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품질관리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음. 이러한 점을 고려해서 당 회계법인에 대하여 ‘중과실’ 처분을 고려해 주십사 하고 의견을 드리는 바임.

○ (위원)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제43기, 제44기, 제45기의 감사인이 계속 바뀌고 기간도 짧아졌는데 왜 그랬던 것인지?

▶ (진술인)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은행 감사를 받으면서 지적되었던 것은 대부분 회계적인 문제는 아니었음. 내부 업무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감사인 지정이 되었던 것이고,

그래서 바뀌었음. 그리고 사업연도가 바뀐 것은 당시에 법률이 개정되면서 저축은행 사업연도를 12월말로 다 변경시킴에 따라서 6월말 사업연도이었던 것이 12월말로 되어서 저희 ○○회계법인 감사할 당시에 12월말 법인으로 변경이 된 것임.

- (위원) 그런데 감사를 하고 제45기는 또 ▲▲회계법인으로 바뀌었음.

▶ (진술인) 그것도 마찬가지로 회계적인 문제는 아니었고 내부적인 업무프로세스의 개선이 안 이루어져서 지적사항으로 감사인 지정이 되었던 것임.

- (위원) 내재파생상품 분리 회계처리 누락과 파생상품 부채평가 누락을 상계(netting)하면, 공교롭게도 다른 두 회계법인은 중요도 1미만이 되어서 면책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회계법인만 1.77배가 되어서 규정상 '중과실'이 된 사항임.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알고 계신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조치형평성 관련해서 결국에는 전임 감사인인 △△회계법인이 제대로 해 주었으면 우리도 제대로 했을 것이다, 그런데 △△회계법인이 제대로 못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못한 것이다, 형평성 차원에서 △△회계법인이 면책을 받았으면 우리도 면책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냐는 내용을 적시하셨는데 거꾸로 얘기해서 ○○회계법인이 제재를 받으면 △△회

계법인도 제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그런 의도로 적은 것은 아님. 저희들이 감사 과실에 대해서 그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중과실 판단을 좀 재고해 주십사 하는 의도로 적은 것임.
- (위원) 그런데 제44기 감사하는 기간 동안에 실제로 내재파생상품 관련해서 전환권도 실행이 되었고 조기상환청구권도 실행된 내용을 인지하지 못하셨는지?
- ▶ (진술인) 감사절차상 있는 것은 알았지만 그것이 회사가 영업활동을 하는데 있어서 주주에게 대출을 해 주는 과정에서 생긴 것이었고 본인들의 채권 확보를 위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일부 간과한 부분이 있었음. 그렇지만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회계법인의 조서를 기초감사하면서 검토를 했고 그쪽 회계법인의 내용 자체가 파생상품에 대한 리스크 부분이 간과되어 있었기 때문에 짧은 시간 내에 감사를 해야 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놓쳤던 것 같음.
- (위원) 기본적으로 전환사채(CB)나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조기상환청구권(Put option) 붙어 있는 경우에는 내재파생상품과 주계약을 구분해서 회계처리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지?
- ▶ (진술인) 회사가 제대로 제시를 했으면 당연히 분리 회계처리를 해야 됨.

○ (위원) 그렇다면 회사에서 제대로 제시하지 않았다는 것인지?

▶ (진술인) 회사에서 평가를 하지 않아 제시가 누락된 사항임.

○ (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했듯이 2015년 6월말부터 2016년 12월말까지 △△회계법인, ○○회계법인, ▲▲회계법인에서 공히 복합상품에 대해서 전환권, 신주인수권, 콜옵션 부채를 놓친 것은 지금에 와서 들여다보면 전문가로서 역할이 상당히 미진한 것으로 보임. 그것은 인정하시는지?

▶ (진술인) 일부 하자는 인정함.

○ (위원) 타금융기관에서 이렇게 복합상품의 전환권이나 콜옵션 부채나 이런 평가가 2015년 당시에 많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이런 것을 놓쳤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되지 않음. 그래서 저는 원론적으로 이 3개 회계법인이 다 제재가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고, 콜옵션 부채와 전환권이나 신주인수권 회계처리 분리를 상계해서 1 미만이나, 1을 초과되었느냐 하는 것이 나오지만 각각 개별로 보면 중요도 금액이 상당히 높음. 그렇기 때문에 △△회계법인이나 ▲▲회계법인의 경우 상당히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고 느껴짐. 그리고 아까 오류정정의 기회를 말씀하셨는데 일반적으

로 후임 감사인이 재무제표를 수정하면서 회사와 논의를 하고 전임 감사인과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렇다면 전전기 감사인의 경우에도 통상적으로 그런 내용을 알려 주는지?

▶ (진술인) 전임 감사인도 수정을 했기 때문에 전임 감사인은 전전임 감사인에게 통지를 해야 되는 것이 맞음.

- (위원) 금감원, 통상적으로 절차(process)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 (보고자) 방금 ○○회계법인에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절차(process)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회계법인의 요청으로 ▲▲회계법인이 오류수정을 하면서 2015년말 잔액을 수정하지 않았음. 그래서 ○○회계법인에 다른 통보가 없었던 것으로 생각됨.

- (위원) 회사의 경우에도 수정으로 변경된 부분이 별로 중요하지 않고 내재파생상품 콜옵션 부채 부분에 대해서는 감경사유가 없는 것으로 나와 있음. 그래서 이것은 이슈가 아닌 듯 하고, 그다음에 '설사 공인회계사에 대한 위법행위 동기가 중과실로 처분되더라도 회계법인에 대하여도 중과실로 처분하는 것은 부당합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사인 감사인의 행위는 회계법인의 행위임. 이것은 공인회계사 감사에 대

한 이해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보고자) ○○회계법인의 조치과정에 대해 간단하게 4가지로 말씀드리겠음. 우선, '중과실' 판단사항임. 내재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한 검토내용이 감사조서에서 전혀 확인이 안 됨. 기존 사례를 보면 평가과정의 오류 등 불합리한 점이 있으면 '과실'로 판단해 왔고 전혀 검토가 없는 경우 일관되게 '중과실'로 판단해 왔음. 두 번째, 감사인의 감경 관련인데 수정 기회가 없었다는 부분은 말씀드렸습니다만 설사 2015년말 기준으로 수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감사인 사이의 또는 감사인과 회사 간의 커뮤니케이션 문제로 기존의 감경사례에서는 확인이 안 됨. 그다음에 지정감사인과 관련하여, 지정, 감사착수, 감사기간이 짧았던 것은 맞음. 감독규정 개정으로 회계연도가 6개월로 줄어들었음. 그렇지만 파생상품의 공정가치 평가는 감사인이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다 보니까 통상 외부평가를 받아서 적정 여부를 검토하는 수준임. 이런 것으로 봤을 때 시간이 짧았다고 할 수 없음. 만약 시간이 부족하여 평가과정에서 중요한 오류가 발생하였다면 그 부분은 저희가 감경할 수 있다고 봄. 그렇지만 ○○회계법인은 전기 감사인과 같이 검토 자체를 전혀 안 했으므로 감경을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음. 네 번째, 금융감독원 검사과정에서 본 건을 최초로 지적했는데 그 경위를 보면 검사반이 감사착수 전에 서류를 검토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고 현장감사에 착수해서 대출과정을 전부 확인하니 쉽게 지적이 되었던 사



항임. 또 보유자산도 전환사채(CB), 신주인수권부사채(BW)가 있으면 당연히 점검(check)해야 되는 사항인데 감사조서상 지정감사인 이 이를 전혀 점검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위반동기나 조치수준에 따른 감경은 저희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함.

○ (위원) 저축은행검사국에서 통보받은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 이외의 지적사항들의 경중이 어떤지?

- (보고자) 지적사항이 한 9가지 정도로 개별차주의 신용공여 한도초과 등임. 이것은 조치수준이 기관경고와 행위자인 임원들은 문책경고, 직무정지 등의 조치가 되었음. 그리고 과징금도 회사에 대해서는 15억 2,100만 원, 과태료 3억 6,000만 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음.

○ (위원) ‘다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내재파생상품 및 콜옵션 공정가치를 평가받는다면 지적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 이 부분에 대한 금감원 측의 입장은 어떤지?

- (보고자) 보통 Black-Scholes Model이나 이항모형으로 평가하면 평가기관별로 가지고 있는 고유의 방법(tool)에 따라서 약간씩 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종적으로 지적금액을 산정하고 기준점을 잡는 것은 회사가 택한 방법임.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회사가 수정한 금액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달리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음.

○ (위원)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제재 수위에 대해서는 큰 이견

은 없음. 그런데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복합상품에 투자한 것이 2013년 8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인데 그 기간 중에도 동일하게 내재파생상품에 대해서 분리를 안 했을 테고 파생상품 부채에 대해서도 평가를 안 했을 텐데, 2013년과 2014년 것은 왜 감리를 안 하셨는지?

- (보고자) 2013년, 2014년 6월에는 평가대상이 되는 건수가 매우 적었고, 중요도 자체가 1이 안 나와서 감리대상기간에서 제외했음.

○ (위원)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회계법인도 1배 이하이고 ▲▲회계법인도 1배 이하인데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왜 감리를 하셨는지?

- (보고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지적사항이 두 개인데 지적사항 '가'의 중요도, '나'의 중요도 그 자체가 1이 안 되어서 뺐다는 말씀임. 2015년 6월부터는 '가'의 지적사항과 '나'의 지적사항이 중요도가 1을 넘기 때문에 두 개 다 지적을 했는데 최종 양정을 할 때는 '가', '나'의 지적사항에 상쇄되는 효과를 감안해서 양정을 하여 지금 △△회계법인과 ▲▲회계법인은 빠진 것임. 2013년, 2014년과 다른 점은 그 점임.

○ (위원) 알겠음. 중요도를 계산을 할 때 기존에도 상계(netting)를 했었는지?

- (보고자) 지적사항이 여러 개가 있을 경우 지적사항별로 당기순이익이나 자기자본 과대·과소 방향이 다른 경우가 있는

데 그럴 때는 나중에 양정할 때 각각의 지적사항을 다 합산해서 상쇄효과까지 감안하여 양정을 하고 있음.

- (보고자) 지적금액 기준으로는 현행 기준상 조치는 어려운 것 같음.
- (위원) 마지막으로 당부말씀 하나 드리면 감리위에서도 이야기가 이루어졌다고는 하는데 파생상품 공정가치 평가와 관련해서 저희가 예전에 한 번 다뤘던 것 같음. ○○○○○○ ○에서 평가를 했는데 평가한 수치에 대한 논리성이 현격히 결여가 되어 있는 경우를 저희들이 심의를 한 적이 있었던 것 같음. 그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파생상품 내재가치 평가에 대한 것을 전반적으로 규정이나 아니면 그쪽 시장이라든가, 제대로 된 평가가 될 수 있게 절차(process)를 밟으셔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제가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도 평가를 안 받아서 제재를 받았는데 그쪽 주장은 평가한 금액이 자기들이 생각했던 금액과 너무나 터무니가 없어서 자기들 생각대로 했다는 것임. 그런데 저희들은 외부평가를 안 받았다고 제재했던 기억이 남. 이 경우도 비슷한 것 같음. 그래서 파생상품 내재가치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시장이라든가, 절차(process)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위원) ○위원님 질문사항에 이어서 지금 여기 감리위 심의 의견에도 나오는데 다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공정가치 평가를 받는다면 금액이 변동될 수 있다고 해서 ○○회계법인에서 특별히 합리적으로 제시한 수치가 있는지?

- (보고자) 이 부분에 대해 별도로 제시한 수치는 없고 변동가능성만 얘기했음.
- (위원) 파생상품으로 인한 자산적 효과와 부채적 효과를 상계해서 한 것이 있었는지? 예를 들어 이 회사가 콜옵션 부채가 없었으면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중요도가 거의 10배가 되고 ○○회계법인은 6배, 그러니까 실질내용을 들여다보면 △△회계법인이 더 잘못된 것인데 운이 좋게도 상계를 하다보니까 0.29가 된 것이어서, 아까 ○○회계법인에서도 그런 진술을 했고 감리위에서도 1단계 경감사유를 넣은 것 같음.
- (보고자) 이런 경우에는 모든 사례(case)에서 상계한 다음에 양정을 하고 있음. 말씀하신대로 △△회계법인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것이고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도 각각의 지적사항은 6 내지 7이기 때문에 중과실 III단계에 해당하는데 상계를 함으로써 V단계로, 지금 사실상 2단계 감경된 상태임.
- (위원) 2012년에 IFRS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되었고 2015년, 2016년 이렇게 들어오면서 이 당시에 복합상품에 대한 부채·자산평가 이런 것들이 공인회계사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인지가 되었던 단계인지?
- (보고자) 2015년 정도라면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당한 인식이 있었다고 저희는 보고 있음.

- (위원) 아무튼 △△회계법인이 윤이 좋았든 어쨌든 간에 규정에 의거해서 제재가 안 된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감경사유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좀 있고, 내재파생상품 및 콜옵션 공정가치 평가의 차이(variation)가 굉장히 크다면 이 부분을 우리가 추가로 고려해 볼 수 있는 것인지, 아까 ○ 위원님께서 적절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서 현재 평가된 것의 적절성 그리고 다른 평가기관에서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한 자료는 없고 그냥 진술인이 주장하는 것만을 가지고 수정 심의에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것인지 조금 고민이 됨.
- (위원) 감리위 때 제가 금감원에 다른 외부평가기관으로부터 평가받으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것인지를 물었을 때 금감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하셨음. 그렇게 되면 전부 다 “나도 한 번 평가 받아 보겠다.”고 다 나서고, 저도 금감원 말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렸던 것인데, 저는 이 건을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어떤 사람이 금을 1돈 훔쳤는데 금값이 떨어지면 이 사람은 죄가 안 되고 금값이 올랐을 때 이 사람은 죄가 되고 그런 경우임.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생각을 좀 해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음.
- (위원장) 제145호 안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하겠음.  
○○회계법인은 (주)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이 전환사채 등에 포함된 전환권 등의 공정가치 평가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이를 적절히 검토하지 않는 등 감사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보기는 어려움. 다만, 행위에 따른 제재의 형평성,

회계연도 변경에 따른 촉박한 감사일정, 가치평가에 따른 위반금액의 변경 가능성 등을 고려하면 현재의 제재수준은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는 것도 사실임.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감안할 때 『외부감사규정』 [별표7] 양정기준 중 감경 사유인 “위법행위의 원인, 결과, 방법 등으로 보아 정상을 특별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 원안에서 각각 1단계씩 감경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11시44분 정회)

(14시00분 속개)

□ 의결안건 제146호 『(주)주노컬렉션의 대표이사 ○○에 대한 직권재심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회사가 대표이사 사망 사실을 증선위, 금감원에 통보하지 않으면 알 수 없는지? 다른 방법으로는 대표이사 사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인지?

- (보고자) 상당히 이례적인 사안이다 보니까 저희가 통상적인 업무상황에서는 파악하기 어려운 부분임.

○ (참여자) 이번에는 이 사망 사실을 어떻게 확인하셨는지?

- (보고자) 증선위에서 과태료 부과가 결정이 되면 금융위에서 사전안내를 하게 되는데 대표이사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안내하니까 회사에서 대표이사의 사망 사실을 통보해 주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47호 『(주)한국테크놀로지의 사업보고서 및 감사보고서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회계법인 독립성 위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사원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데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계약을 체결했다고 되어 있는데 일전에 ▽▽회계법인의 경우에는 주식을 보유했던 것도 아니고 대출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그때 우리가 ‘중과실’로 제재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음.

- (보고자) 보통 감사인 독립성 위반 관련해서는 기본 조치기준이 2010년 4월13일에 증선위에 보고한 것이 있음.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2017년 6월21일에 일부 내용을 보완해서 보고한 사실이 있음. 그 내용 중에 위반동기 판단과 관련해서 회계법인이 적절한 기간 내에 자체 발견하여 조치완료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부통제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한 경우로

보아 감사인의 위반동기를 ‘중과실’이 아닌 ‘과실’로 판단한다고 명확히 되어 있음. 그렇다 보니까 ‘중과실’로 판단할 여지는 없었음.

○ (위원) 적절한 기간이라는 것이 언제까지인지?

- (보고자) 이것은 독립성 점검 주기 내를 말하고 있음.

- (보고자) ▽▽회계법인 같은 경우에는 감사계약 체결하기 전에 발견하지 못했고 다음해에 감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발견하게 되었음. 독립성 점검 과정에서도 확인(check)하지 못해서 위반기간이 길었음. 그 기간 동안 확인(check) 안 된 것 때문에 ‘중과실’로 지적되었던 것이고, 이번에 금감원에서 보고 드린 건은 위반기간이 상당히 짧았고 그 금액도 작아서 이렇게 된 것으로 저희는 이해를 하고 있음.

○ (위원) 아까 말씀하셨던 (주)○○○○○○○○에 대해 통보된 것은 회계분식 혐의가 없는 것으로 되었고 감사인감리1팀에서 회계처리위반사항을 통보해서 이번에 제재하는 것인데 이런 독립성 위반 같은 것은 품질관리감리결과로서 제재하지 않는지?

- (보고자) 지금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같이 있어서 한꺼번에 처리하게 된 것임.

○ (위원) 행위자가 동일한 사람이다 보니까 회계기준과 복합적으로 제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인지?



- (보고자) 舊양정기준에 보면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따른 조치와 독립성 위반에 따른 조치의 1단계 가중한 조치 중에 둘 중에 중한 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비교해서 양정해야 되는데 만약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독립적으로 먼저 조치했는데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더 중한 조치라면 조치가 조금 혼란스러워지는 상황이 있어 두 개를 비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음.

○ (위원) 그것은 지금도 동일한지?

- (보고자) 新양정기준에서는 조치를 합산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합산을 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한 행위자로 인해서 독립성 위반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같이 있을 때는 여전히 이런 식으로 제재를 할 수 밖에 없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독립성 위반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은 당해 회사의 이사인 공인회계사가 제재를 받는 것인지?

- (보고자) 감사인과 해당 감사담당이사가 같이 조치를 받고 있음.

○ (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독립성 위반의 경우 해당 회사와의 감사계약 문제는 지난번 증선위에 보고해 주신 기본방침에 따라서 해당 감사인과 회계사에 대해 '과실'로 했

을 경우에는 해당 회사에 옵션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난 증선위에서 보고했던 지침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면 이것은 '주의'이기 때문에 (주)한국테크놀로지에 굳이 감사인을 변경하라는 명령을 할 필요가 없고 이 회사가 정하면 되는데, 다만 좀 고려를 해야 될 것이 이것이 2016년 위반이기 때문에 이제 와서, 만약 ○○ 회계법인이 지금까지 계속 하고 있으면 그것을 바꾸라고 명령을 해야 될 실익이 있지만, 이미 바뀐 상황이어서 명령을 내릴 실익도 크지 않은 상황임.
- (위원) 그러니까 독립성 위반에 대한 제재를 사건이 발생된 그 시점에 바로 제재를 하고, 감사계약 변경까지도 강제하는 조치가 원칙인데 이런 식으로 회계처리기준과 합병해서 처리하다 보면 굉장히 지체됨.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계약을 지정하게 하는 그 조항이 무력화 될 수 있는 것임.
- (보고자) 위원님 지적이 맞음. 저희가 금감원과 협의해서 앞으로 독립성 위반은 가급적 조치가 실효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하도록 하겠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4호 『OOOOOOO OOO OO OOOO 보고』를 상정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 품질관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개선사항 관련해서 'FY2022 개별 감사업무 점검 확대 계획'을 보면 감리대상 중소회계법인 수는 2배반으로 증가시키고, 물론 법인당 개별점검 수는 좀 줄이지만, 그래서 개별점검 감사보고서의 수가 거의 2배 증가하는데, 너무 목표를 높게 잡으신 것 같은데 인원이나 제반여건이 가능한지?

- (보고자) 개수 자체가 3개에서 2개로 줄고 법인은 50개 법인으로 확대를 하는데 기본방안 자체가 기획감리 방식으로 기존의 품질관리 구성요소 6개 항목에 따른 16개 중요 세부항목을 기준으로 점검해 오던 것을 중소회계법인의 특성을 감안했을 때 가장 필수적 품질요소라고 보는 감사조서 관리부분과 사전심리, 그 두 가지를 최우선적으로 반드시 구축하는 목적 하에서 기획감리를 계획한 것임.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점검하는 포인트와 개별감사업무 점검하는 것은 현재 인력으로 기간은 짧게 하고 대상은 늘려서 한 3년에 걸쳐서 중요한 2~3가지 항목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점검을 하고자 하는 그런 기획방안임. 이것이 현재 인력상으로는 조금 무리가 되는 것도 사실인데 한 2명 정도 더 충원을 해서 시행할 예정임.

○ (위원) 중소회계법인 감사인 감리 개선방안이 보고되는 이유가 지난 2021년 감리방안 보고 시에 감사보고서 감리의 개수는 대폭 줄어들고 감사인 위주의 감리를 이행하겠다고 보고했고, 그래서 감사보고서 감리가 구체적으로 회계처리 위

반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대폭 줄어들면 약간 실효성 있는 감리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 아닌가, 그리고 현재 감사인 품질관리감리가 실효성 있게 이행되지 못하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래서 이 내용만 들여다보면 굉장히 의욕적으로 이루어져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우려가 있을 수 있으나, 저는 적절하게 핵심요소에 대한 기획감리 위주로 하고 목표를 가지고 이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임. ‘인센티브/패널티 적용 확대’가 있음. 현행은 패널티만 있는데 개선안에는 인센티브가 들어가 있고, 저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적절하게 보임. 절대적인 기준을 갖고 관리를 철저하게 해서 잘하는 곳은 인센티브를 적절하게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35호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업무 운영방안 보고』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자료에 보시면 내부회계관리제도(이하 ICFR) 감리대상이 나와 있고, 이 내부회계관리제도 감리 대상의 전제가 재무제표 감리 착수된 회사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취약사항이 있거나 회계기준 위반이 나온 경우 해당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렇다면 실제로 중요한 취약사항이 있으나 재무제표 감리에 착수가 되지 않은 경우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감리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지금 시행령에 '재무제표 감리시'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재무제표 감리가 우선 적용됨.

○ (위원) 최근에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가 이행되는 규모가 5,000억 원 이상인 곳을 하고 있는데, 통상 감사의견이 '적정'이 아닌 경우는 대략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

- (보고자) 2019회계연도에는 상장사 160사가 ICFR 감사를 받았음. '적정'이 156사, '부적정'이 4사 정도이고, 2020회계연도에도 '부적정'으로 의견거절이 5사로 한 1%정도 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36호 『펀드 회계처리 관련 한국회계기준원 질의회신 결과 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 의결안건 제148호 『디에스티(주)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 결과』, 의결안건 제149호 『(주)경방의 공시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일괄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공시심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각각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150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본부장 A임. 주식매도 경위는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 수립인데, 제가 새로운 주택 마련을 위한 자금 계획 수립이 사전에 매도의 동기로 있었다는 것이 이번 녹취록 3월10일자 통화에 나와 있음. 주식매도 의뢰의 가장 중요한 것이 4월28일 정보가 생성되기 전에 예비주문을 했던 문자내용이 있음. 그때 한참 주가가 오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예비주문을 했는데 47,000원 이상이 되면 10,000주, 5만 원까지 가면 8,000주,

그래서 저는 4억 원~4억 7,000만 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했다는 말씀을 드림. 매도대금으로 즉시 채무를 변제하였음. 금감원의 내용에 따르면 1분기 영업실적이 적자로 전환되었다는 것인데 그것은 순전히 코로나19 때문에 의한 것이지, 다른 상황이 있지 않았음. 실제 코로나19 때문에 일어난 것이 무엇이나면 제가 말고 있는 ○○○○본부가 2월말에서 3월 중순까지, 그리고 8월~9월 집합금지를 당했음. 특히 1분기에는 주력상품인 온라인상품도 코로나19 때문에 무료로 배포하였음. 처음에는 제가 통화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지 못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런 것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내용을 알지 못하다가 자조심이 끝나고 이것을 입수를 했음. 그 내용만 보더라도 저는 미공개정보에 대한 내용을 알지 못하고, 제가 걱정했던 것은 실적공시에 임박해서 제가 주식을 매도해야 되느냐는 문제였음. 저는 정말로 미공개정보를 알지 못했고, 그렇게 이용한 적도 없음.

○ (위원) B 전무가 회사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 (진술인) 현재 ○○○○본부장임.

○ (위원) ○○○○본부장은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지?

▶ (진술인) 인사·총무·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B 전무가 □□□□□□(주)의 공시책임자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진술인의 진술서와 금감원의 자료를 보면, B로부터는 “1분기 실적 공시 때와 너무 가까워서 욕먹지 않겠느냐?”, “너무 가깝다”는 것이 어떤 시점이 너무 가깝다는 의미인지?

▶ (진술인) 1분기 실적을 공시해야 되는데 45일 이내에 공시한다면 1~3월까지의 실적이 5월15일 이전에 공시되어야 되는 내용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그렇다면 1분기 실적공시 때와 무엇이 너무 가깝다는 얘기인지?

▶ (진술인) 5월15일이 가까워졌다는 얘기임. 제가 4월28일에 주문하고 한참 후에 5월6일 아침에 전화를 받았음. 전화를 받자마자 제가 걱정을 하게 되었던 것이 점점 5월15일에 다가와졌다는 것을 걱정한 것임.

○ (위원) “욕먹지 않겠느냐?”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지?

▶ (진술인) 다른 회사는 어떤지 모르지만 임원이 주식을 언제든지 파는 것에 대해서, 저희는 사는 것은 몰라도 파는 것은 어느 때나 조심스러워하고 있음. 그런데 그것이 실적과 가까워지니까 더 그런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중요한 것이 진술인이 B씨하고 대화한 내용 그리고 C와 대화한 내용이 이 사건에 대한 판단을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음. 진술서에 보면 B씨한테 매도계획을 먼저 이야기를 했다고 나와 있음. 왜 B씨를 찾아가서 그 얘기를 먼저 하셨는지?

▶ (진술인) 저는 그 사실을 조사받을 때 기억을 못해서 “그런 적이 없다.”고 답변을 했었는데 조사과정에서 이러한 내용의 녹취록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음. 아마 주식주문을 하고 주식을 팔 것이라고 공시하는 임원이기 때문에 그냥 얘기를 했던 것 같음. 그런데 그쪽으로부터 “혹시 지금 임박했는데 팔면 욕먹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것이었고 그 걱정이 5월6일 통화 내용에 나온 것임.

○ (위원) B씨와 대화한 녹취록도 존재하는지?

▶ (진술인) 없음.

○ (위원) B씨를 언제 만났는지?

▶ (진술인) 이것은 제 추측인데 4월28일에 아마 매도주문을 내고 제가 가서 얘기한 것 같음.

○ (위원) 금감원 자료에 의하면 5월4일에 면담을 한 것으로 되어 있음.

- ▶ (진술인) 그것은 금감원의 추정으로 알고 있음. 5월4일을 제가 B 전무한테 물어봤더니 5월4일 오전에는 피부과 예약이 있어서 출근을 하지 않았다고 했음.
- (위원) 그러면 진술인께서 기억하기로는 B씨와 면담을 한 것은 4월28일이라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럴 것 같음. 아마 제가 예비주문을 낸 다음에 그것을 내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다고 제가 추리를 할 뿐임.
- (위원) 정리가 안 되는데, 그러면 매도할 계획을 가지고 B씨와 만난 것이 본인 기억에 며칠인지 정확하게 모르는지?
- ▶ (진술인) 정확하지는 않음. 다만, 제가 △△증권에 보낸 4월28일 문자를 보면 그렇게 보내놓고 바로 얘기를 했던 것 같음.
- (위원) 본인 생각은 4월28일 전·후로 해서 B씨에게 매도계획을 이야기했다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런 것 같음.
- (위원) B씨와 만나서 무슨 얘기를 하셨는지? 지금 기억이 가물가물 하겠지만 B씨와의 대화가 어떤 내용이 오갔는지?
- ▶ (진술인) 저는 기억이 나지 않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조사받을 때도 “그런 적이 있느냐?”고 했을 때

제가 당당하게 “그런 적 없다.”고 얘기를 했었음. 1년 전의 이야기여서 제가 기억을 못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녹취록을 바탕으로 그 기억을 떠올렸던 것으로 제가 합리적으로 추론을 한 내용임.

- (위원) 알겠음. △△증권 C와 대화한 내용도 기억이 안 나시고, 녹취록 첨부를 해 주셨는데 그 내용이 조금 애매함. 녹취한 내용만 놓고 보면 영업실적 적자 관련 공시시점에 대해서 인지를 한 것으로 볼 수도 있고 그냥 일반론적으로 공시 전에 매도를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식의 추론도 가능할 것 같고 좀 애매한 상황임. 조금 애매하게 얘기를 하셨는데 녹취록을 근거로 보면 A씨는 주저하고 있었는데 C가 “별 문제없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매도를 결심한 것으로 녹취록에는 나와 있음. C와 대화한 녹취록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저희한테 해 주실 이야기나 정보가 있으신지?

▶ (진술인) 이 내용도 사실 어렵פות한테 녹취록을 보고 다시 떠오르는 것인데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미공개정보, 특히 적자가 났다는 그런 내용들은 알지 못했음. 제가 그때 분명히 기억하는 것은 저희 ○○○○본부가 매우 힘들었던 상황이었음. 하지만 온라인 쪽은 굉장히 잘나가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었음. 그래서 적자는 상상도 하지 못했음.

- (위원) 그러면 내용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고 공시 일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진술서에도 보니까 통상적으로 공시 일자가 있기 때문에 공시 일자에 대해서 인지하신 것은

맞는 것인지?

- ▶ (진술인) 임박했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이런 진술이 어떤 의미가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만약 5월8일 공시를 한다는 것을 알았다면 5월6일에 절대로 팔지 않았을 것임.
- (위원) 20,000주 중에 본인도 기술을 했다시피 10,000주만 처분을 했음. 그 처분 이유가 주택구입을 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전에 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봤을 때 집을 새롭게 구입하기 전에 기존의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는 것이 통례일 것 같은데 구입도 안 하셨는데 대출받기도 어려워진 상황에서 4억 5,000만 원에 해당하는 것을 왜 다 상환을 하셨는지?
- ▶ (진술인) 제가 스탁옵션을 행사하고 세금을 내고 원래 있던 빚하고 정확하지는 않지만 꽤 많은 빚이 있었음. 그것을 주식매도와 이런 것을 통해서 다 상환하고 있던 중에 그때까지 남은 돈이 4억 7,000만 원 정도가 있었던 것임. 제가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현금 확보는 비슷할 텐데 빚을 청산하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했던 것 같음.
- (위원) 기존에 대출금이 많은데 집을 새롭게 구입하시려고 하면 그것을 파는 시점에서 상환을 하는 것이 통상적인 이야기일 텐데, 팔지도 않았는데 상환부터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잘 안 됨. 또, 새집을 사려고 했다고 하시는데 본인 것은 팔지도 않으셨고, 주택구입도 새로 안 하셨음.

- ▶ (진술인) 제가 참 순진한 것이 금감원 조사에서 그런 진술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희가 1가구 2주택이었는데 그 집을 처분하려고 노력했는데 안 팔리다가 거기에 있던 담보금액을 갚아놓으니까 집이 바로 팔렸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제 명의의 집도 빨리 청산하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도 갚아야 된다고 별 생각 없이 했던 것 같음.
- (위원) 주택담보 뿐만 아니라 주식담보 대출도 상환하셨는데, 이것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그러니까 주식담보대출이든 주택담보대출이든 저희 집은 빚이라는 것에 대한 저항감이 있었던 것 같음. 녹취록을 보시면 대출연장을 한다는 얘기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함. “일단, 그렇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데 그 ‘일단’이라는 것은 뭐냐면 제가 곧 갚겠다고 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얘기임.
- (위원) ‘저의 최초 매도 주문은 4월28일, 오전 8시 51분에 이미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진술서에 기록하셨음.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증권 C와 4월28일에 매도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고, 그다음에 5월6일에 C가 그 지침에 의거해서 전화가 온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4월28일부터 5월6일 사이에 C와 다른 커뮤니케이션은 없었는지?

▶ (진술인) 없었음.

- (위원) 그러면 28일에 그렇게 문자 보내고 그것에 기초해서 5월1일에 C가 47,000원 넘어갈지 모른다는 식으로 해서 매도가 이행이 된 것인지?

▶ (진술인) 맞음. 녹취록에도 나와 있음.

- (위원) 일반적으로 내부임원이 주식을 매도할 때는 주식변동에 대해서 공시를 해야 되는데, B씨가 공시담당자이고 또 회계담당자임. 회계담당자니까 그 실적은 알고 있었을 것이고, 통상적으로 임원이 소유주식을 처분하면 공시하는 절차(process)는 어떤지?

▶ (진술인) 매도했음을 서류와 함께 B 본부장이 아닌 그 아래 담당팀장에게 제출함.

- (위원) 통상적으로는 매도하고 사후에 3일 이내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는 사전에 접촉이 됐다는 말임. 통상적으로 매도하고 난 뒤에 알려주면 되는데, 매도하기 전에 B 본부장하고 왜 연락을 했는지? ‘어저께’ 그 얘기를

왜 했는지?

▶ (진술인) 일단, 친분이 있음. 제가 아마 팔아도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고 싶었던 것, 공시일자 이런 것 때문에, 저는 임원으로서 혹시 잘못은 없을까 그런 걱정 때문에 제가 먼저 얘기했던 것 같음.

○ (위원) 실제로 임원으로서 처음 매도한 것인지?

▶ (진술인) 아님. 그전에 중간 중간 매도를 했었음.

○ (위원) 그때도 이렇게 사전에 공시담당자와 논의를 하는지?

▶ (진술인) 안 했던 것 같음.

○ (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B씨와 접촉이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정확하게 기억을 하지 못하시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본인은 ○○○○본부장이고 B씨는 ○○○○본부장인데 사장님을 포함한 경영진이 전부 몇 명이나 되는지?

▶ (진술인)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 본부장은 그렇게 4명이 있고, 그 밑에 사업지원실 등 상무들이 있음.

○ (위원) 그러면 본부장님들 위에는 또 누가 계신지?

▶ (진술인) 사장 밖에 없음.

○ (위원) 부사장이나 전무 이런 분들은 안 계신지?

▶ (진술인) 본부장은 직책이고, 부사장이나 전무는 직급임.

○ (위원) 그러면 사실상 네 분의 본부장님들이 최고경영진을 구성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인지?

▶ (진술인) 형식적으로는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최고경영진분들이 얼마나 커뮤니케이션을 자주 하는지?

▶ (진술인) 일주일에 한 번 회의를 하는데 자조심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사는 상장회사이기는 하지만 가족 중심의 회사이기 때문에 본부장들은 실제 경영을 기획하기 보다는 자기 사업부문을 책임지는 역할이 더 큼.

○ (위원) 본부장들 간에는 전혀 커뮤니케이션이 없는지?

▶ (진술인) 거의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위원) ○○○○본부라는 것이 결국은 나머지 본부장님들이 맡고 계시는 3개 사업본부를 전반적으로 지원해 주고 총괄



하고 이런 역할인 것 같은데, 4개의 본부장님들이 모두 모여서 하는 의례적인 간부회의 이외에 없다고 치더라도 3개 본부장님들과 ○○○○○본부장님의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을 상당히 원활하게 해야만 회사가 제대로 운영되는 것 아닌지?

▶ (진술인) ○○○○○본부장은 각자 ▲▲▲▲▲본부장이라든가 ◇◇◇◇◇본부장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 선임자였음. 그래서 저와는 매우 친하고 만날 때마다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보고서 4페이지에 ‘(3) 주요쟁점’ 이렇게 기재되어 있고, ‘<판단근거> ① A와 △△증권 직원과의 2020.5.6. 08시 50분 경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 본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녹취록 내용을 구체적으로 부연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5월6일 08시50분44초에 전화가 된 C와 A의 녹취록 내용을 말씀드리는 것임. 그런데 A가 한 말 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저희가 B 본부장하고 어저께 그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뭐, 저기 ‘공시 나가기 전에는 조금 그렇지 않겠냐.’ 그러는데.” 하는 말이 있음. 이것은 실적자료 곧 나갈 것 같아서 눈치 보이지 않겠느냐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반대로 뒤집어서 보면 실적자료가 잘 나왔다는 것을 알았으면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없다는 것임. 그러니까 그 실적자료가 안 좋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런 말이 나왔고, 그 앞부분 말씀을 드리면 “B 본부장과 어저께 그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바로 면담을 했다는 것을 나타낸다는 것임.

- (위원) 그리고, ‘③ 매매 전후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이라고 해서 판례를 아래에 적시해 놓았는데, 이 사안 관련해서 <판단근거> ① A와 △△증권 직원과의 2020.5.6. 08시50분 경 전화통화 녹취록에 의하면, B 본부장과 면담하는 과정에서 동 악재성 정보를 취득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외에 전후의 제반사정을 고려할만한 것이 있는지?

- (보고자) 진술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4월28일에 매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부분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됨. 분명히 매도하려는 의사는 있었다, 그래서 악재성 정보를 지득한 것이 유일한 매도 사유는 아니라고 적시한 것임.

- (위원) 아까 A씨 얘기에 의하면 B씨가 5월4일에는 회사에 없었다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금감원 의견은 어떠한지?

- (보고자) 저희는 녹취록에 근거해서 5월4일경에 B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것일 뿐임. 사실 그 시점이 언제냐는 것을 떠나서 최소한 5월6일 이전에 B를 통해서 이 정보를 지득했다는 부분은 녹취록을 통해서 충분히 확인된다고 생각함.

- (위원) 제가 A한테 질문했던 것과 똑같은 것을 여쭙어 보겠음. 아까 약간 해매던데, A 추가의견진술서에 이런 말이 있

음. ‘그러나 당사자는 경영실적 공시와 무관하게 자신의 계획에 따라 주식 매도를 추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임원으로서 보유 주식 매도 시에는 이를 공시할 의무가 있어 먼저 공시업무 담당임원인 B에게 매도 계획을 알린 것이었고, 이때 B로부터는 ‘1분기 실적 공시 때와 너무 가까워서 욕을 먹지 않겠냐는 취지의 막연한 이야기를 들었을 뿐이며,’ 아까 제가 진술인한테 물어봤는데 첫 번째가 ‘너무 가까워서’, 두 번째가 ‘욕을 먹지 않겠냐’ 이것에 대한 금감원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저희가 녹취록만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어서, 실적 공시 때와 너무 가깝다는 말은 실적 발표 내지는 공시 때와 너무 가깝다는 의미로 해석된다고 생각함. 그리고 욕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은 악재성 정보를 먼저 알고 판 것에 대해서 소액투자자들 시장으로부터 욕을 먹지 않겠느냐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음.
- (참여자) 이분이 47,000원을 매도 예정가격으로 선정해 놓고 그 가격이 될 때만을 기다렸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 가격과 이분이 주장하고 있는 주식 매도 경위에서 본인은 4억 5,000만 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 부분과 일치(match)가 되는지? 아니면 금감원 측에서 보셨을 때 다른 주장 아니면 허위주장, 억지주장인 것 같은지?
- (보고자) 수치상으로 보면 이분의 주장이 일리가 있는 것은 사실임. 처음에 매도 의사를 밝혔고 금액이라든지, 실제로 매도한 가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이 설명하신

부분은 일리가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림. 사실 주가가 오르기 전에 “나는 이 정도 가격이 되면 팔아야지.”라고 증권사 직원한테 말은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가격이 급등해서 그 가격까지 가게 되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시 한 번 고민하는 것이 일반적임. 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오르니까 더 오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매도를 보류하고 좀 더 지켜볼 수도 있고 그냥 예정대로 매도할 수도 있는데 이분의 경우에는 그 시점이 왔을 때 악재성 정보를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정보를 지득하고 있는 부분이 최종적인 매도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겠느냐, 그런 점에서 미공개정보이용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임.

- (참여자) 5월6일자 아침 8시50분 녹취록 부분에서 살짝 갈등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C와 A의 대화내용 중에 “실적이 좋으면 주가가 반드시 오르고 뭐 이런 것도 아니었거든요.”라는 이런 대화내용들이 나옴. 여기에 대해 금감원에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 (보고자) 원론적으로 누구나 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것은 의사결정에 미칠 내용은 아니라고 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전 제37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8시44분 폐회)